

이낙연 “추석 이동 자제를...4차 추경 추석 전 집행되길”

“추경 전액 국채...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국민에 부당한 불이익 안 받는단 믿음 줘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다가오는 추석과 관련해 “여러 사정과 생각이 있겠지만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삼정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하나 걱정 있어서 부탁을 드린다. 이번 추석에 대이동이 있다면 다시 코로나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집콕’ ‘방콕’ 추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말씀은 차마 쓰지 못하겠다”면서도 “이번 추석까지 잘 넘겨서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 그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특징은 첫

째로 전액을 모두 국채로 총당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 코로나 사태가 매우 유동적이게 된 상황에서 추경이라는 처방을 내린 것과,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빚을 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하는 압박이 커졌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 끝에 어려운 국민을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라며 선별 지원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원 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견이 나왔으나 모든 의견을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내린 그 이유와 불가피

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리는게 중요하다”며 “그런 믿음을 드리려면 행정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여러 경계를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그때 조치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석 이전부터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추경안 편성과 제출을 서둘러주고, 국회는 추경안 처리를 서두르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명래 장관, 제10호 태풍 '하이선' 복상 대비 긴급 점검회의의 주재.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6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홍수대응 기관인 4개 유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및 기상청,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련 소속·산하기관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복상 대비 긴급 점검회의(영상)를 개최하고, 태풍 상황 및 각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장제원 “무소속 의원들 복당 처리해야”...홍준표 “고맙다”

김종인에 “속 좁은 리더십으로 당 운영해서는 안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복당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이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100일 간의 정기국회가 본격 가동되고, 4·15 총선을 치른 지도 벌써 5개월이 다 되어간다”며 “이제,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를 해결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장을 겨냥해 “그리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은 문제를 특별한 이유 없이 미

루는 것은 공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당권을 쥔 입장에서 보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역량이 검증된 지도자급 국회의원들의 복당을 막는 것은 당을 비대위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장 의원은 “부질없는 영역 방어 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속 좁은 리더십으로 당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시·도당 준비는 이미 끝났다”며 “최소한 복당을 이미 신청한 분에 대한 심사마저 머뭇거릴 명분은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적격이면 부적격 이유

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로지 당권 강화에만 혈안이 되어 범야권 통합에 장애물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 바란다.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무소속 복당 문제가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장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홍준표 의원은 댓글로 “그래도 장제원 의원이 나서주니 참 고맙다”고 화답했다.

총선 당시 컷오프(공천배제) 등의 이유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당선된 국민의힘 출신 의원들은 권성동·김태호·윤상현·홍준표 의원 등이 있다.

‘독설·특강’ 존재감 띄우는 안철수...‘대선 로드맵’ 가동?

진중권과 유튜브 진행 눈길 최고위서 잇단 강성 발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강경 발언과 외부 강연 참석 등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안 대표의 두드러진 행보는 지난 8월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와의 유튜브 ‘철권 토크’ 영상으로 눈길을 끌기 시작했다. 정부여당과 ‘진문’ 세력에 대한 맹비난이 화제가 되면서 독설가로 불리는 진 전 교수와 안 대표의 공함이 잘 맞아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안 대표는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정부여당을 비판할 때에 수위를 조절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문제인 대통령의 눈빛이 박

근혜 전 대통령을 닮아간다”, “청개구리 대통령” 등 종전 그답지 않은 직설적인 화법으로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를 ‘패륜 정부’라고까지 지칭해 여론 인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과의 통합론에도 힘을 실는 듯한 행보를 보이며 반경을 넓히고 있다. 그는 오는 15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주도의 ‘대한민국 미래 혁신포럼’ 특별 강연자로 나설 예정인데, 주제가 ‘야권의 혁신과제’다. 해당 포럼에는 원희룡·오세훈 전 시장 등 굵직한 야권 대선 잠룡들이 초청돼 있다.

일각에서는 안 대표의 일련의 언행이 이제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주도의 '대한민국 미래 혁신포럼' 특별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안 대표 스스로 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론에 선을 그은 만큼, 내년 보궐선거가 아닌 대선을 목표로 두고 몸집을 키우고 있다는 해석이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서동용, 철강부원료 수입관세 폐지 관세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최근, 철강 생산에 필요한 부원료의 수입 관세를 철폐하여 철강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철강 완제품에는 무세가 적용되는 반면, 페로크롬, 페로니켈, 페로니오븀 등 철강부원료 12

대 품목의 경우 2~6.5% 수준의 관세가 잔존하고 있어 완제품보다 원료 관세율이 높은 비정상적 역경사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서동용 의원은 “일본, 대만, 중국 등 경쟁국의 경우 수입관세가 없거나 낮고 특히 중국은 코크스 최대 생산국임에도 무세를 적용하고 있어 세계 철강 시장은 물론, 국내 시장에서도 국산 철강제품이 값싼 수입산에

역차별 받는 실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장기화 되는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로 전 세계 철강산업이 위기로 내몰리는 엄중한 시기에 침체된 철강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수입산 철강제품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